



2016 Spring(봄호)

건강한 금융생활정보 가이드

 KEB 하나은행

목차 CONTENTS

1.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 계좌이동 서비스
- 금융거래 한도계좌 시행

2. 알아 두면 유용한 10대 금융조회시스템

-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 계좌이동 서비스
- 상속인금융거래통합조회시스템
- 통합연금포털
- 카드포인트통합조회시스템
- 신용정보조회서비스
- 보험가입조회서비스
-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 서민금융 1332
- 금융교육센터



※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1.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이사 등으로 주소 변경시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 변경 신청하면 여타 금융회사도 일괄변경 가능

I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이하「금융주소 한번에」서비스) 개요

- (서비스 내용) 금융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선택한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변경해주는 서비스
- 동 서비스 시행으로 개별 금융회사에 일일이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하는 불편을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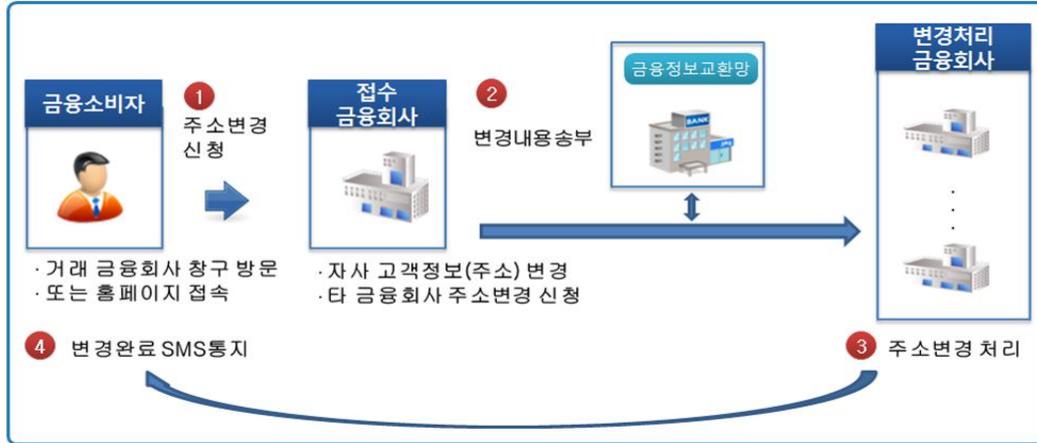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란?

언제	어떻게	무엇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직장이동으로 주소 변경시• 거래 금융회사별 주소가 달라 일치시키고자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속• 본인 확인 (신분증 또는 공인인증서 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하는 다른 금융회사를 선택 하여 주소(집, 직장)를 한번에 변경 신청 (신청서 또는 신청화면에 기재)

- (서비스 시행 일정) '16.1.18일(월)부터 거래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개시
- '16.3월 이내 거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 시행 예정*

* 일부 금융회사는 1.18. 시행, 나머지는 금융회사별로 1~3월 중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예정

「금융주소 한번에」서비스 흐름도



□ (신청 자격) 금융회사와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 고객

○ 본인만 신청 가능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가능)

※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

□ (접수처)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은지점 제외),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의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속

※ 접수처 이외 할부금융·리스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금융공사는 접수는 하지 않고 주소 변경처리만 가능

□ (변경 대상 기관)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중 주소 변경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신청서에 기재

*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카드사, 할부금융·리스사, 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금융공사

□ (변경 정보) 집 또는 회사 주소 (도로명주소, 5자리 우편번호)

□ (신청·변경 확인) 신청 금융회사에서 확인증 및 안내문을 수령

○ 변경처리한 각 금융회사에서 변경결과를 문자로 통지

주소 변경을 한번에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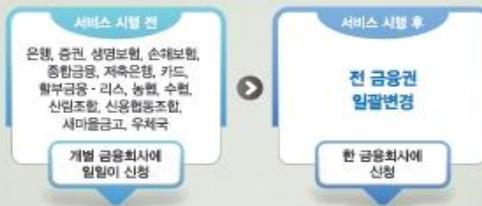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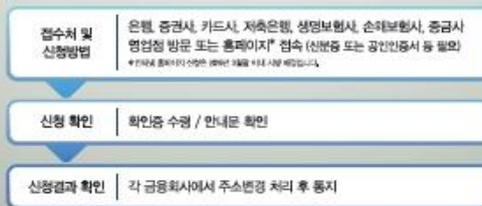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주소를 바꿔드립니다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는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일일이 방문하거나 연락할 필요 없이 한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의 주소도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시행전후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이용방법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가능한 금융회사



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진흥은행, 제주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SC은행



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동부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우화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토러스증권, 펀드오리온코리아,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양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증권, 흥국증권, HMC투자증권, BK투자증권, KB투자증권, KDB대우증권, KTB투자증권, LG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생명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동부생명보험, 중앙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메타라이프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알리안츠생명보험, 푸르덴셜생명보험, 하나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현대라이프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ACE생명보험, AIA생명보험, BNP파리리카디프생명보험, DGB생명보험, IBK연금보험, ING생명보험, KB생명보험, KDB생명보험, NH농협생명보험, PCC생명보험



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대계이손해보험,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서울보증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화재, ACE손해보험, AIG손해보험, AXA손해보험, BNP파리리카디프손해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할부금융 리스 도이차미이앤셀, 동부캐피탈, 롯데캐피탈, 무림캐피탈, 국제캐피탈,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코스모캐피탈, 폭스바겐피이앤셀, 호성캐피탈, BNK캐피탈, JB유리캐피탈, NH농협캐피탈, SPC캐피탈



저축은행 강원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공평저축은행, 구미저축은행, 국제저축은행, 금화저축은행, 남양저축은행, 대명저축은행, 대백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다이저축은행, 대원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 다별저축은행, 대케이저축은행, 동부저축은행, 동양저축은행, 동원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도이저축은행, 민국저축은행, 무림저축은행, 삼보저축은행, 삼일저축은행, 삼정저축은행, 삼호저축은행, 세광저축은행, 세종저축은행, 스타저축은행, 솔브레인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스키이저축은행, 스타저축은행, 신안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산저축은행, 아주저축은행, 인국저축은행, 인양저축은행, 영에스저축은행, 영진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오성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오투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유니온저축은행, 웅천저축은행, 인성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장은저축은행, 조흥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철거저축은행, 창주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페피저축은행, 평택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한성저축은행, 한신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흥국저축은행, BNK저축은행, DH저축은행, HIC저축은행, IBK저축은행, JT저축은행, JT진애저축은행, KB저축은행, NH저축은행, OSB저축은행, S&T저축은행, S&P저축은행, TS저축은행



종합금융 우리종합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한



상호금융 우리금융공사, 새마을금고, 우체국



유한기관 *주소 일괄변경 신청 접수처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주소 변경을 한번에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는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일일이 방문하거나 연락할 필요없이 한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의 주소도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주소를 바꿨드립니다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금융서비스가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변경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한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로 소비자의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해 드리는 대국민 편의서비스가 2016. 1. 18일 부터 시행됩니다.



주소 일괄변경을 신청하면 이런 점이 좋아집니다!

- 금융거래 수반 주소를 일일이 변경 신청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비용이 절감됩니다.
-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희, 자동차보험 만기 등 중요한 정보를 통보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면금융 재산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주소로 민감한 정보가 송부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어집니다.
- 금융회사가 보내드리는 각종 유익한 정보 (수익률 안내, 펀드 현황, 연금 개시일 안내, 참고사항 및 계약정보 등)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우편물 발송 처리비용, 주소 피인여 소요되는 업무처리 비용이 절감되어 금융서비스의 질이 개선됩니다.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세부내용



신청 자격 금융회사와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 고객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변경 정보 집 또는 회사 주소 주소 변경을 신청하신 금융회사에 계약자 명의의 모든 금융 계약(대출금, 펀드,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채, 대출, 할부금융, 은행계 카드 등)에 변경된 주소가 적용됩니다.



변경 대상 전 금융회사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카드사, 할부금융, 리스사, 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금융공사



신청 방식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은 2016년 3월말 이내 시행예정으로 금융회사별로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 (내방 및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 (접수처 :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카드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신청인이 선택한 다른 금융회사로 주소변경 신청

각 금융회사에서 주소 변경 처리 후 통지

* 접수처인 금융회사에 신청인의 금융거래가 있어야 신청가능



- Q&A**
- Q 연락처나 이메일도 변경 가능한가요?
A 주소 변경만 가능하며, 연락처나 이메일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Q 도로명 주소로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 주소 및 5자리 우편번호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거래가 없는 금융회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도 거래가 있는 금융회사여야 합니다.
 - Q 신청 후 변경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여 드리나 주소 및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없는 경우 해당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급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개별 금융회사에 직접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Q 처음으로 거래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주소변경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신청된 정보가 마케팅 등에 사용될 수도 있나요?
A 거래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송부된 개인정보는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되며, 주소 변경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Q 대출은 제외하고 예금관련 우편물 수령만 변경 가능한가요?
A 주소 변경을 신청한 금융회사에 있는 고객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에 변경된 주소가 적용되므로 일부 계약만 주소지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일부계약의 주소만 변경을 원하실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약칭 :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 오픈

- 예·적금, 펀드, 주택담보대출, 연금저축, 실손의료보험 등을 한 눈에 비교 가능
- 본인의 재무상황, 거래목적 등 조건에 맞는 금융상품을 조회 가능

I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의 주요 내용

여러 권역에서 공통으로 취급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금융상품을 통합하여 소비자 맞춤형 정보 제공

□ (공시대상 금융상품)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권역간 비교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은 통합 비교공시

* 177개 금융회사, 총 853개 금융상품(정기예금 160개, 적금 178개, 연금저축 216개, 주택담보대출 133개, 전세자금대출 56개 등)

- 특정업권에서만 판매되는 펀드,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협회 사이트(펀드공시, 보험다모아)를 연결하여 제공

금융상품별 비교공시정보

금융권역	금융 상품	금융권역	비교공시정보
금감원 통합 비교공시 (여러 권역)	정기예금	은행, 저축은행	저축기간별 이자율, 우대조건 등
	적금		적립유형(정액/자유), 저축기간별 이자율 등
	대출	주택담보	금리구간, 중도상환수수료, 대출한도 등
		전세자금	상환·금리 방식, 금리구간, 중도상환수수료 등
		개인신용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및 평균금리
	연금저축	은행, 보험	유지건수, 연평균수익률, 월 예상연금액 등
	퇴직연금	금융투자	유지건수, 연평균수익률 등
협회 비교공시 (특정 권역)	펀드	금융투자	펀드수익률, 위험등급, 설정액 등
	실손보험	보험	가입연령 등 조건별 보험료, 담보내역 등
	자동차보험		

- (공시방법) 각 금융회사가 협회에 제출하고 있는 정보를 취합하여 매월 20일 공시 (연금저축은 분기별 공시)
 - 단, 이자율 변동 등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공시
- (맞춤형 정보제공)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예: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을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 상품의 핵심정보**를 제공

* (입력정보) 자금용도, 대출금액, 기간, 금리, 상환 방식, 주택종류, 가격
 ** (조회정보) 상품별 금리구간, 전월취급 평균금리, 월평균상환액, 총 대출비용 등

II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이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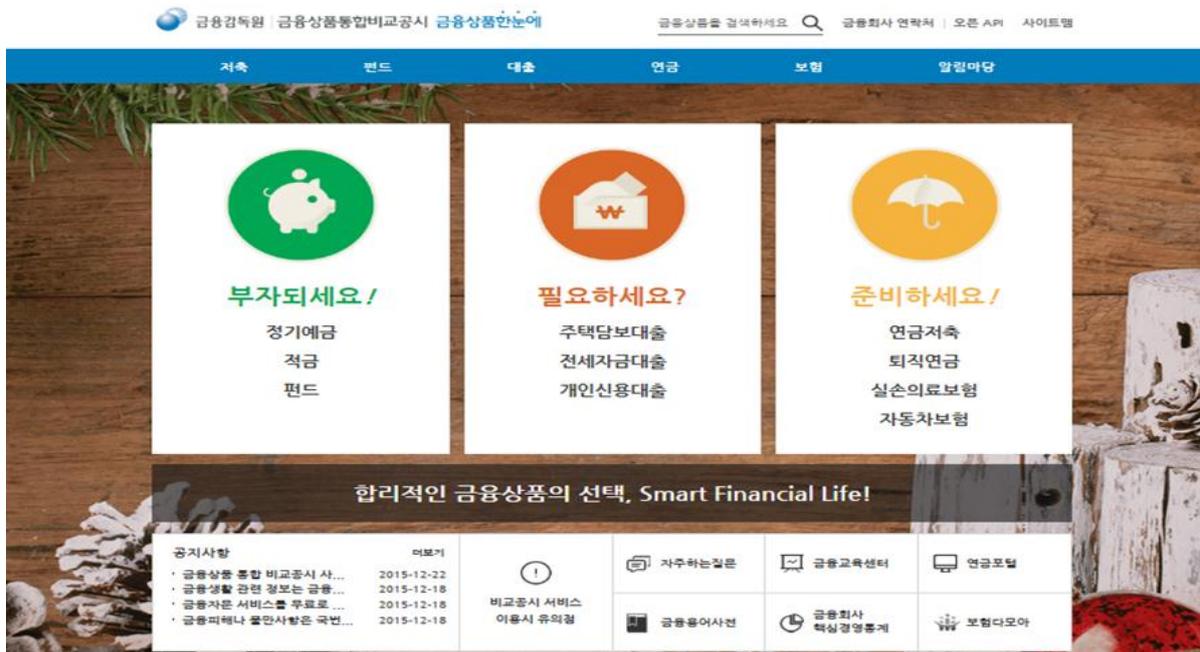
'16.1.14.(목) 09:00부터「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약칭: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 에서 서비스 제공

가. 메인 화면

- (화면 중앙)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크게 3개로 구분하여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
 - 부자되세요! : 정기예금, 적금, 펀드
 - 필요하세요?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 준비하세요! : 연금저축, 퇴직연금,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 (화면 하단) 금융교육센터, 금융회사 핵심경영통계, 연금포털, 보험다모아 등 상품 선택에 유용한 금융정보 제공 사이트를 안내하고,
- 공지사항, 비교공시 서비스 이용시 유의점* 등 주의사항 게시

* 금융회사의 상품별 금리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금융회사에 상품정보 문의 필요 등

<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메인화면 >



나. 금융상품별 검색 : 주택담보대출(예시)

① (상품 선택) 화면 중앙의 '필요하세요 - 주택담보대출'을 클릭



② (입력 정보) 주택가격, 주택종류, 금리방식, 상환방식 등 희망하는 조건을 입력하여 '금융상품 검색' 클릭

* 기본값은 주택가격 3억원,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10년, 아파트, 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으로 설정

주택담보대출 홈 > 대출 > 주택담보대출 [영어 설명](#)

주택가격	대출금액	대출기간	LTV
300,000,000 원	100,000,000 원	10 년	33.3 %
주택종류	금리방식	상환방식	
아파트	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	
금융권역	전체 은행 저축은행 보험		
지역선택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금융상품 검색

③ (조회 정보) 해당조건에 맞는 대출상품의 **최고/최저금리, 전월취급 평균금리, 월평균 상환액*** 등 핵심정보가 **‘최저금리’ 순으로 조회**

* 월평균상환액은 전월취급평균금리가 일정하게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예시금액으로 산출

○ 해당상품 클릭시 가입방법, 중도상환수수료, 대출한도 등 상세정보 제공

검색결과

결과내 검색 전체

검색된 금융 상품은 총 45 건 입니다. 다운로드 페이지 별 리스트: 10

비교 선택	금융회사	상품명	주택종류	금리방식	상환방식	최저 금리	최고 금리	전월 평균금리	월평균 상환액
<input type="checkbox"/>	○○ 은행	XX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	2.22%	4.49%	3.07%	968,842
<input type="checkbox"/>	□□ 은행	△△ 주택대출	아파트	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	2.25%	6.27%	2.94%	962,840
<input type="checkbox"/>	XX 생명보험	○○ 모기지론	아파트	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	2.45%	4.15%	3.55%	991,203
<input type="checkbox"/>	△△ 은행	□□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	2.46%	3.54%	2.77%	955,027

III 각 협회별 비교공시 개선

□ '15.2월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각 금융협회는 금융상품의 비교 검색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유익하도록 기존 공시시스템 개선

○ 유형별 공시에서 세부 상품별 공시로 전환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 또한, 금감원의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에 공시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 강화

협회별 비교공시 개선 현황

구분	비교공시 개선
은행연합회	신용한도대출 공시 신설, 신용등급별 금리를 부도율 기준 통일('15.9월)
생·손보협회	보험다모아 출범('15.11월), 대출상품 비교공시 신설('15.7월)
금투협회	펀드의 수익성 변동위험을 나타내는 위험등급(1~5등급) 신설('15.6월)
여신금융협회	자동차리스상품 공시 신설('15.9월)
저축은행중앙회	대출산정기준 변경,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세분화('15.10월)

○ 한편, '16.1월중 공시시스템 개편을 통해 세부 금융상품 공시정보를 추가하고 금리, 수익률 등에 대한 과거 히스토리 정보를 제공하여,

- 소비자 스스로 시장흐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도록 지원할 예정

⇒ **협회 비교공시 시스템의 경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

◆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금감원콜센터 1332」로 전화하시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평일 9시~20시, 토요일 9시~13시),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및 금융통계 등 각종 정보는 **금융소비자보호처** (<http://consumer.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 (이용채널) 홈페이지(www.payinfo.or.kr) + '각 은행'(창구, 인터넷뱅킹)(2.26)
- (자동이체 유형) 자동납부 + '자동송금' 조회·해지·변경(2.26)
 - * (자동납부) 요금청구기관에 상품·서비스 이용대금 납부(예: 통신비, 카드대금)
(자동송금) 고객 스스로 금액·주기를 설정(예: 월세, 회비, 적금납입금)
- (자동납부 요금청구기관 범위) 카드·보험·통신사 등 대형 기관('15.10말~) + 지자체·공기업(지방세, 전기·가스·수도요금), 리스·렌탈업체 등('16.2말~ 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95% 차지) + 기타 소규모 기관(상반기 중)
- (계좌통합관리; 어카운트인포) 본인명의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 및 본인계좌로 '잔고 이전'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4/4분기)

가. 추진 경과

- (추진배경) 금융소비자가 주거래계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요금청구기관(예: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별로 기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월급 등 주요 소득원 입금, 주요 지출행위 처리 등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계좌

- ➔ 국민들의 금융거래 편의 제고 및 은행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계좌이동서비스 도입

*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 추진계획」(제13차 금융개혁회의, '15.10.29)

계좌이동서비스(Account Switch Service) 개요

- (주(主) 서비스) 자동이체* 연결계좌 변경
 - * 자동이체 유형: ①(자동납부) 요금청구기관에 이용대금 납부(예: 통신비, 카드대금)
②(자동송금) 고객 스스로 금액·주기를 설정(예: 월세, 적금납입금)
- (부가 서비스) 구(舊)계좌 해지, 잔고 이전, 리다이렉션(Redirection)* 등을 각 국가의 금융시스템 여건에 따라 제공
 - * 요금청구기관이 구계좌에 출금 요청시 자동이체계좌가 변경되었음을 회신
- ※ (해외사례) 영국(Current Account Switch Service, '01년 도입 → '13년 개선), 호주(Account Switching Facilitation Package) 등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 중

- (추진현황) 다수의 기관(금융회사 51개, 요금청구기관 약 5만개)과 방대한 자
동이체 건수(약 6억건)를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시스템 안정성 유지
 - (1단계) 은행 등 금융회사 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홈페이지(페이인포)에
서 ‘조회’하고, 불필요한 내역은 ‘해지’(15.7.1~)
 - (2단계) 대형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카드·보험·통신, 전체 자동납부 건
수의 약 2/3 차지)부터 출금계좌 ‘변경’서비스 시작(15.10.30~)
 - (3단계) 홈페이지(페이인포) 외에 ‘각 은행’(창구 및 인터넷뱅킹)에서 자동납부
및 ‘자동송금’에 대한 조회·해지·변경 가능(16.2.26~)
- (이용현황) 서비스 시행 약 4개월만에 페이인포 홈페이지에 104만명이 접속하
여 47만건의 자동이체를 변경하고 25만건을 해지(15.10.30~16.2.24)
 - 자동이체 변경 일평균 6천건, 해지 3천건 등 은행계좌를 보유한 대다수 국민
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음
- (소비자서베이*) 계좌이동서비스 인지도 71%, 만족도 73%, 유용성 80% 등 소비자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됨(영국**의 경우 75%를 목표치로 설정)

* 무작위 1,000명, 서비스 이용자 466명 설문조사(16.2월, 나이스알앤씨)

** [영국, '14년] 소비자 인지도(조사기관마다 16%, 41%, 69%로 다양), 신뢰도(65%), 만족도(68%)

- 무작위 선정 10명 중 7명이 계좌이동서비스를 인지(인지도 70.9%)
 - 다수의 금융개혁 과제 중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과 더불어 대표
적인 국민 체감형 서비스로 인식
- 실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73.0%로 시행 초기임을 감안할 때 양호한 편
 - 3단계 서비스 시행 이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또한, 동 서비스의 유용성(80.0%), 신뢰도(72.7%), 이용 편리성(72.3%) 측면
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
 - 요금청구기관 범위 확대 및 전산처리 정교화 작업 지속

- (국제비교) 시행초기임에도 약 15년 동안('01년 도입) 운영해 온 영국보다 이
용자 편의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 처리기간 5영업일(영국, 7영업일),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영국, 창구방문 필요)

** 변경전·후 은행간 수락률(Acceptance rate) 98%(영국, 95%)

-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없어 서비스 총 이용시간이 짧고(1~3분), 자동이체 건별로 해당 요금청구기관 안내 전화번호가 화면에 표시되어 궁금한 사항은 즉시 연락하여 해소 가능
- 다만, 서비스 범위는 영국이 보다 광범위(예: 잔고이전, 구계좌해지) → 우리나라도 금년 4/4분기 중 **계좌통합관리(Account info)** 기능을 통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계좌정리기능** 추가 예정

나. 3단계 시행방안

- 온라인 뿐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자동납부 외에 ‘자동송금’도 서비스 대상에 추가
- ◇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고 은행간 계좌이동 현상도 본격화 예상

1. 서비스채널 확대(온라인+오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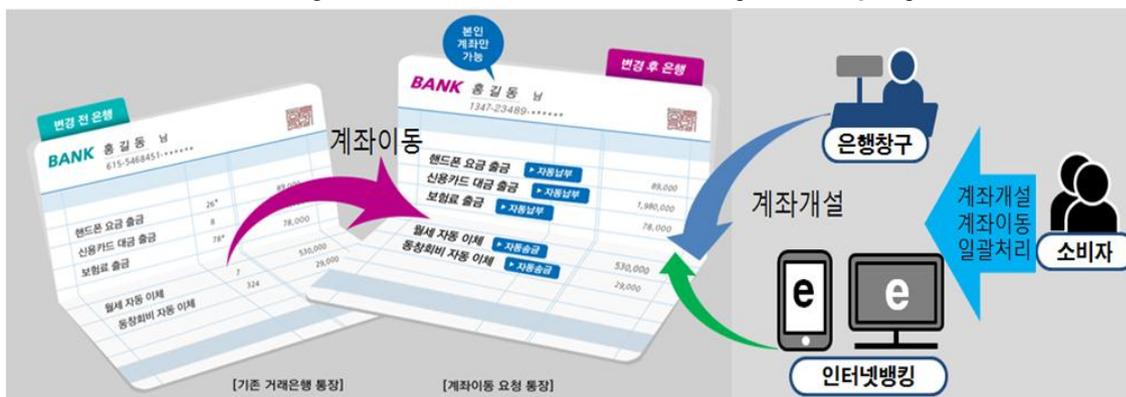
□ (고객 입장)페이인포 홈페이지 외에 ‘**신규거래를 희망하는 은행**’의 창구 및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에서 신규계좌 개설* 및 계좌이동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 가능

* 옮겨가고자 하는 은행의 계좌를 이미 가지고 있던 고객은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됨

- 그 동안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접근이 어려워 페이인포 홈페이지를 통한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고객층도 앞으로는 옮겨가고자 하는 은행으로 손쉽게 계좌이동 가능

* 공인인증서 발급수: 2,650만건(‘15년말), 20세 이상 총인구: 4,015만명(‘15년말)

< 이용채널 확대에 따른 계좌이동 편의성 증대 >



< (사례1) 은행창구 시행에 따른 편의성 증대 >

- ◆ A는 자택 근처에 있는 B은행으로 주거래은행을 변경하고 싶어도 공인인증서가 없고 인터넷 이용이 어려워 페이인포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 은행창구에서 계좌이동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B은행에 방문하여 신규계좌를 개설하면서 기존 거래은행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B은행계좌로 한번에 이동

- (은행측) 신규계좌 개설을 위해 방문한 고객에게 자동이체 계좌 변경시 부가혜택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대고객 서비스 노력을 기울이는 시장환경 조성
 - 그 동안은 주거래계좌 여부가 고객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고객 스스로 요금청구기관별로 연락 필요)하였으나, 향후 고객의 신청에 따라 은행 직원이 자동이체 계좌변경을 할 수 있어 적극적인 고객유치 가능

< (사례2) 은행창구에서 주거래계좌 유치 >

- ◆ 은행직원 C는 신규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 D에게 기존에 다른 은행계좌에서 출금되던 자동이체를 신규계좌로 이동하여 주거래계좌가 되면 예금금리 및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음을 안내
 - D는 직원 C의 설명에 따라 주거래계좌를 변경하기로 결심하고 계좌개설과 계좌이동을 동시에 신청하여 기존보다 거래조건을 우대받고 부가혜택도 받게 됨

2. 자동이체 처리범위 확대(자동납부+자동송금)

- 자동납부 외에 월세, 동창회비, 적금납입금 등 고객이 직접 이체주기와 금액 등을 설정한 '자동송금' 내역에 대해서도 조회·해지·변경 가능
 - 은행권 개인계좌에서 처리되는 전체 자동이체 내역 중 자동송금은 10% 비중을 차지

* '15년 중 개인계좌 자동이체 건수: 27.3억건(자동납부 24.5, 자동송금 2.8)
금액: 639.0조원(자동납부 574.7, 자동송금 64.3)

< (사례3) 자동이체 처리범위 확대 >

- ◆ 직장인 E는 **페이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서로 다른 계좌에서 출금되던 신용카드대금, 보험료, 이동통신요금 등이 1개 계좌에서 출금되도록 변경하였으나, **월세(자동송금)**는 지속적으로 다른 계좌에서 출금되던 상황
 - 이제 페이인포와 각 은행에서 **자동송금 계좌변경**이 가능해짐에 따라 **월세 출금도 1개 주거계좌로 통합**하여 계좌를 효율적으로 관리 가능

3. 서비스 가능한 요금청구기관 지속 확대('16.2월말 현재 95% 수준)

- **카드·보험·통신 3개업종 우선 연계**(‘15.10말, 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67%) → **지자체·공기업**(예: 지방세, 전기·가스·수도요금), **리스·렌탈업체** 등으로 확대(‘16.2말, 95%) → **기타 요금청구기관까지 연계**(총 5만개, 상반기 중)
- 단, 요금청구기관이 **납부가능 은행을 소수(1~3개)**로 제한*한 경우에는 동 서비스 이용이 **부득이하게 제한**됨(예: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 소비자편의 제고 차원에서 납부가능은행 확대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

< 자동납부 유형 >

구분	항목	요금청구기관	구분	항목	요금청구기관
통신료	휴대폰요금	이동통신사 등	주거비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케이블TV, IPTV			수도요금	상수도사업소
	인터넷요금			가스요금	도시가스사
	유선전화요금			KT 등	아파트관리비
보험·연금	생명·손해보험	보험사	교육비	스쿨뱅킹	학교(초·중·고교)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학습지·학원비	학습지회사
	국민연금(임의가입)	국민연금공단	대출	보험약관대출	보험사
	공제회	노란우산 등		카드론	카드사
카드	신용카드	카드사	세금	지방세·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
	백화점카드	백화점	기타	신문·우유대금	신문사 및 우유회사 등
할부금	리스·렌탈료	일반회사		후원금	종교단체 등

■ 금융거래 한도계좌 시행 안내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KEB하나은행은 금융사기로부터 고객님의 자산을 보호하고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규계좌 개설에 대한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2016. 3. 2일부터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금융거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명 칭 : 금융거래 한도계좌

2. 대상고객 :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고객

3. 대상계좌 :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금융회사별 1인당 1계좌 개설가능)

단, 대포통장 명의인 및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의 경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대책에 따라 계좌개설이 제한됨

4. 거래의 범위 및 한도(거래종류별 1일 거래한도) /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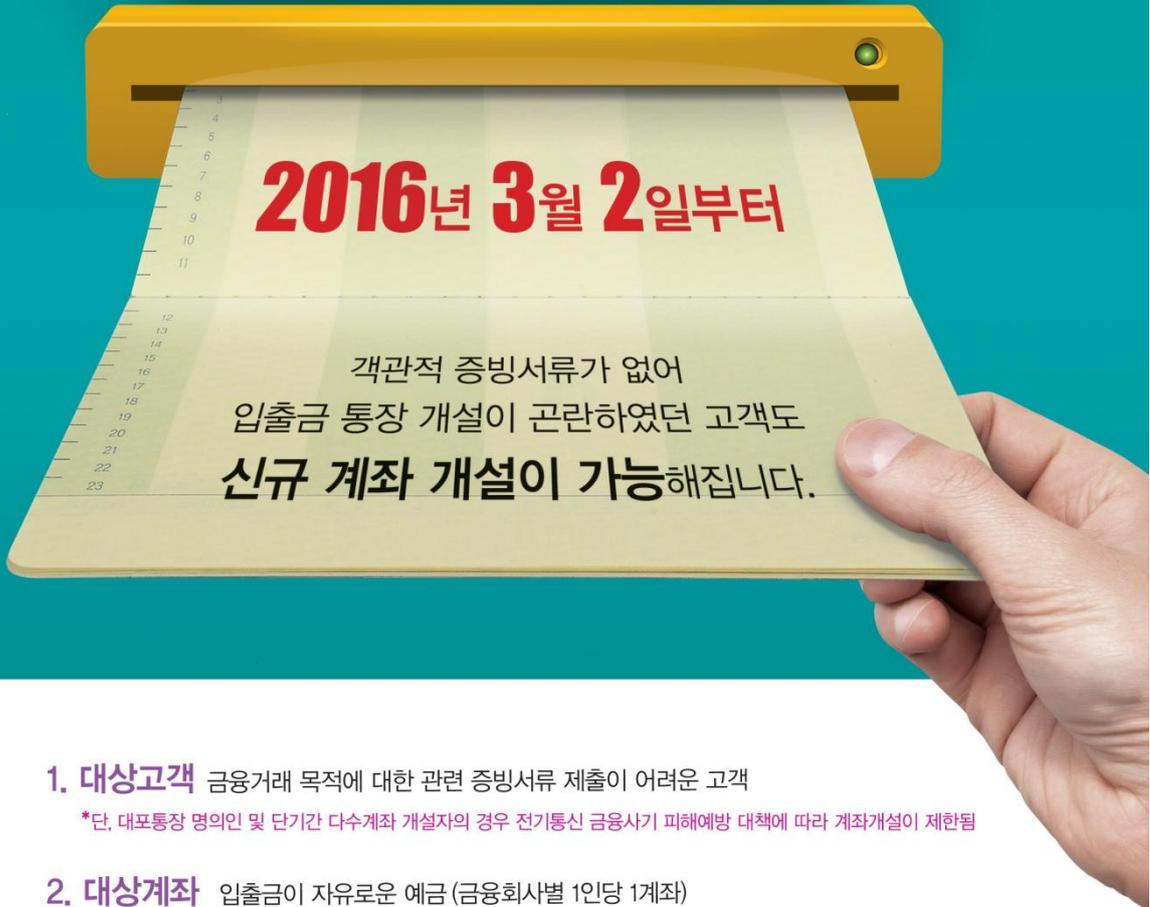
창구거래	ATM 거래		전자금융거래
	인출	이체	
100	30	30	30

5. 한도상향 방법 : 객관적 증빙서류 제출시

6. 시행일자 : 2016년 3월 2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TEL 1599-1111) 또는 가까운 영업점 앞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 시행



1. 대상고객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고객

*단, 대포통장 명의인 및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의 경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대책에 따라 계좌개설이 제한됨

2. 대상계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금융회사별 1인당 1계좌)

3. 금융거래의 범위 및 한도 거래종류별 1일 거래한도

창구거래	ATM거래		전자금융거래
	인출	이체	
10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금융거래 한도계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2. 알아두면 유용한 10대 금융조회시스템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생활 가이드(제113편)」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금융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융관련 통합조회정보 등을 안내
- 금융감독원 및 각 협회 등은 국민들이 금융생활을 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의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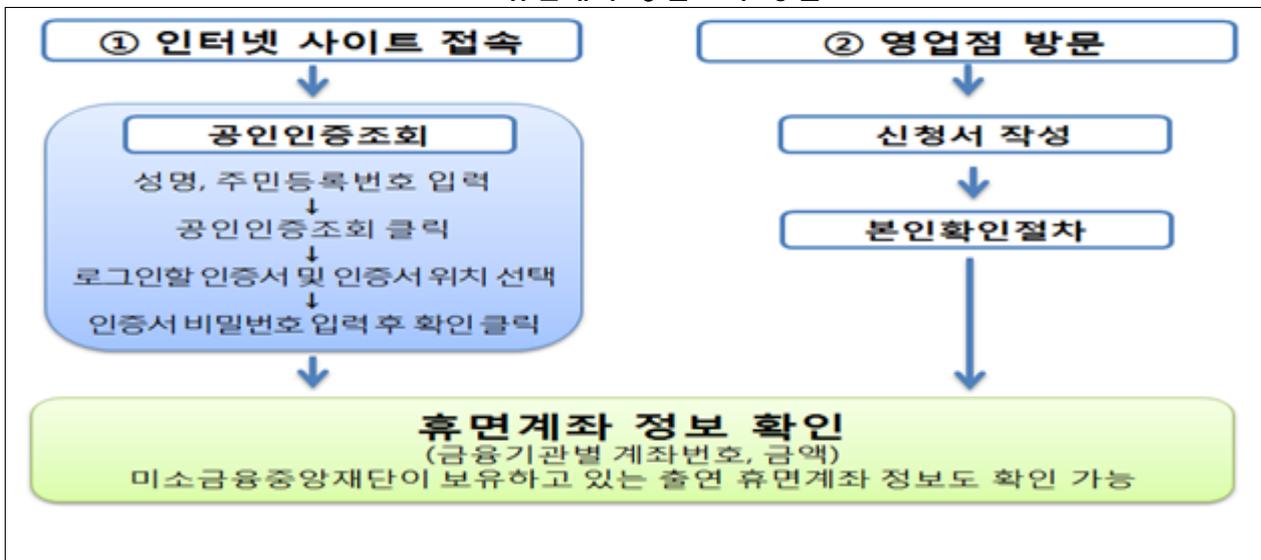
<알아두면 유용한 10대 금융관련 통합조회시스템>

금융관련시스템	주요 내용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www.sleepmoney.or.kr)	5년 이상 거래 기록이 없는 예금 및 보험계약 만료된 후 2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조회
Payinfo(계좌이동서비스) (www.payinfo.or.kr)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를 국민 누구나 일괄 조회·변경 가능
상속인금융거래통합조회시스템 (cmpl.fss.or.kr)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채무를 원스톱으로 확인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	87개 연금사업자의 연금정보 제공
카드포인트통합조회시스템 (www.cardpoint.or.kr)	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인트 및 소멸예정 포인트·소멸시기 조회
신용정보조회서비스 (www.credit.co.kr)	개인신용정보 인터넷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무료로 개인신용정보 조회
보험가입조회서비스 (www.klia.or.kr)	조회대상자가 계약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유효·해지계약의 보험가입내역 조회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16.1월 오픈)	예·적금, 보험 등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서민금융 1332 (s1332.fss.or.kr)	서민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전용 금융포털 사이트
금융교육센터 (edu.fss.or.kr)	무료 재무진단 및 금융교육 신청 등 다양한 금융교육 정보를 제공

1 | 잠자고 있는 계좌(예금보험),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으로 한번에 찾으세요

-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에서 공인인증서 확인후 간편 조회 또는 가까운 은행, 보험사, 우체국 점포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
 - ※ 휴면계좌란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 보험 2년)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것
- 휴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지급 요청시 수령 가능
 - ※ 다만, 휴면성 증권계좌는 증권사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미수령 주식·배당금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휴면계좌 통합조회 방법>



<참고>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메인화면



2 | 계좌이동서비스, Payinfo에서 간편하게 은행계좌 이사하세요.

- 금융결제원은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서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정보를 일괄 조회·변경하는 계좌이동서비스를 제공
 - 고객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의 계좌로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던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길 수 있음
- ※ 향후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채널을 Payinfo 홈페이지에서 '전국 은행지점' 및 '각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확대할 예정('16.2월~)이며, 계좌변경이 가능한 요금청구기관의 범위를 이동통신·카드·보험 3개 업종('15.10월)에서 시작하여 모든 업종(주거비, 교육비, 세금 등)으로 확대 예정('16.6월)

<계좌이동서비스 이용방법>

- 1단계 Payinfo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 2단계 본인명의 은행 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 항목 중 출금계좌 변경을 원하는 항목 선택
- 3단계 이동해가려는 신규 은행명과 계좌번호 입력
- 4단계 휴대폰 인증으로 신청인 본인 여부에 대해 추가 확인
- 5단계 자동납부 출금계좌 변경에 대한 안내사항에 대해 확인 후 변경신청 완료
- 6단계 Payinfo가 휴대폰 인증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변경결과 통지
→ Payinfo에서 세부 처리결과 조회 가능(신청 후 5영업일 이내)

<참고> Payinfo 홈페이지 메인화면



3 숨어있는 상속재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번에 확인하세요.

○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확인 가능하며, 결과는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확인 가능

- 지자체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조회까지 원스톱으로 이용가능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절차>

- ①상속인 : 금감원 및 지자체 등에 방문하여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 조회신청 (신청 완료 사실 문자메시지로 통보)
* 금융감독원 본·지원·사무소, 전국 지자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
- ②금감원 : 신청자료를 종합하여 금융업협회 등에 조회 의뢰
- ③금융업협회 : 금융회사에 조회 완료사실을 상속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
* 조회결과는 금감원 및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④상속인 : 거래내역이 있는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자금인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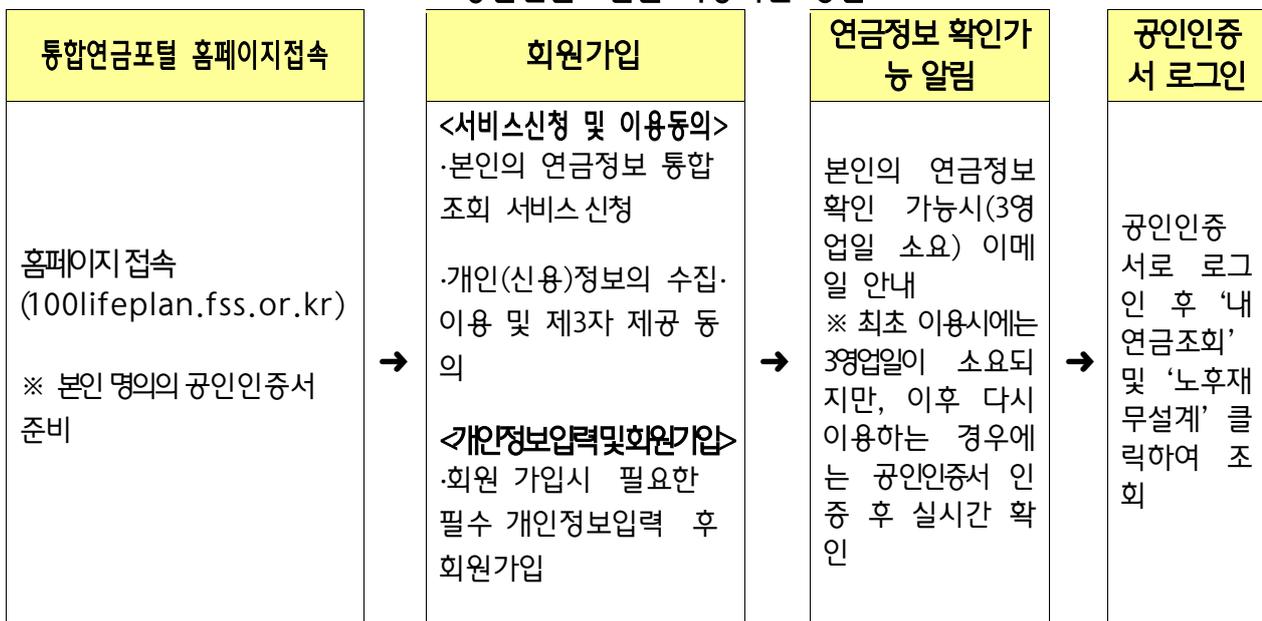
<참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요



4 합리적인 노후설계,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해 보세요.

- 금융감독원은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소금융** 회사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일괄 조회 서비스** 제공
 - ※ 은행, 증권, 보험 등 83개 금융회사와 3개 공제사업자(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의 연금정보가 제공되며, 최근에는 우정사업본부간 협력으로 우체국 연금까지 조회 가능
- 각 연금의 **연령별 예시연금액**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추정납입액을 기초로 **합리적인 노후설계**가 가능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는 방법>



<참고> 통합연금포털 메인화면



※ 처음 방문한 사용자는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영업일 경과 후 본인의 연금정보 조회 가능

5 돈이 되는 포인트,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으로 소멸시기 확인하세요.

-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인증 후 각 카드사의 잔여 포인트 및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를 한번에 확인 가능

<참고>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메인화면



6 나의 신용정보, 무료 개인신용정보 조회시스템으로 확인해 보세요.

-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4개월에 1회 무료로 개인신용정보* 조회 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확인 가능

* 대출정보, 연체정보, 신용조회정보, 카드개설정보, 신용등급 및 신용점수 등

<개인신용정보 무료열람가능 홈페이지>

기관명	홈페이지	제공 횟수	주요 제공내용
나이스평가정보(주)	www.credit.co.kr	4개월에 1회	- 개인신용 등급 - 금융거래 내역 등
코리아크레딧뷰로(주)	www.allcredit.co.kr		
서울신용평가정보(주)	www.siren24.com		
전국은행연합회	www.credit4u.or.kr	상 시	- 금융거래 내역 등

7 나의 보험가입내역, 보험가입조회시스템으로 확인해 보세요.

- 생·손보험회는 조회대상자가 계약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유효·해지계약의 보험가입내역* 조회 정보 제공

* 보험회사명, 상품명, 증권(계좌)번호, 모집점포, 전화번호

- 생·손보험회 홈페이지* 보험가입조회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시 5영업일 이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신분증을 소지하여 협회방문 신청시 즉시 확인 가능

*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 단, 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보험 등 공제상품은 조회되지 않음

<참고> 생명보험협회 보험가입조회 메인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KLIA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About KLIA', '소비자' (Consumer), and '모집중사자' (Recruiting Agent). Below this is a secondary menu with various service categories.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보험가입조회안내' (Insurance Inquiry Guide). A prominent notice states: '※ 본부(총무로)에서는 보험가입조회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지역은 수도권지역본부(종로5가)를 방문해 주세요.' (We do not handle insurance inquiry business at the head office (General Affairs). Please visit the Seoul Area Head Office (Jongro 5-ga) for inquiries in the Seoul area.) Below the notice, there are two tabs: '생존자 보험가입 조회안내' (Survivor Insurance Inquiry Guide) and '사망자 보험가입 조회안내' (Deceased Insurance Inquiry Guide). The 'Survivor' tab is active, showing a list of inquiry methods: 1. 조회내용 (Inquiry Content), 2. 조회방법 (Inquiry Method), 3. 인터넷을 통한 신청(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내역 조회 : 1~5영업일 소요) (Online application for life and property insurance records: 1-5 business days), and 4. 협회 방문을 통한 신청(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내역 조회 : 실시간 제공) (Inquiry by visiting the association: real-time provision). At the bottom, there are buttons for '신청하기' (Apply), '결과보기' (View Results), and '생존자 보험가입조회 위임장 내려받기' (Download Delegation Form for Survivor Insurance Inquiry).

8 | 맞춤형 금융상품,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16.1월 오픈)로 찾아보세요.

- 생손보험회는 보험상품을 온라인상 쉽게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를 운영중에 있음

<참고>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개요 및 메인 홈페이지

- 추진배경 : 보험상품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비교하고 보험가입까지 연계
- 도메인 : www.e-insmarket.or.kr
- 등재상품 : 단독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 보장성·저축성보험
- 이용절차 : ①「보험다모아」 접속, ②원하는 보험종목 및 상품선택
③보험료 및 보장금액 등 비교, ④온라인 가입 클릭(콜센터 전화)
⑤보험사 가격체결 사이트 이동 ⑥본인 정보입력 後 보험가입
- 운영주체 :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공동 주관
- Help Desk : 콜센터(1833-5775) 를 통해 「보험다모아」 이용에 관한 사항 안내
※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문의는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



- 또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소업권을 포괄**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 추진*
 - '15.9.2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상품 비교공시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
 -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권역간 비교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희망하는 검색조건을 설정하여 **상품비교** 가능('16.1월 금감원 홈페이지에 오픈예정)

9 | 서민맞춤 정보제공, 서민금융 1332를 이용해 보세요.

- 금융감독원은 서민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서민금융 1332(<http://s1332.fss.or.kr>)' 홈페이지를 운영중에 있음
 -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서민맞춤대출안내, 피싱사기 피해예방,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참고>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메인화면



10 | 나를 위한 금융교육, 금융교육센터를 활용해 보세요.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 정보 등이 종합적으로 안내되어 있는 '금융교육센터(<http://edu.fss.or.kr>)'를 운영중에 있음
 - 무료 재무진단 및 맞춤형 금융교육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금융교육 체험 등을 신청할 수 있음

<참고> 금융교육센터 메인화면

